

이번 호 메인 주제로 ‘한국 내 이주민의 종교실태’를 다뤘는데, 이번 소주제로는 최근 발표된 ‘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이주민 인식’(한국리서치)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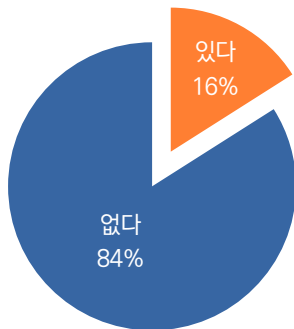


우리 국민 10명 중 7명(72%),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 좋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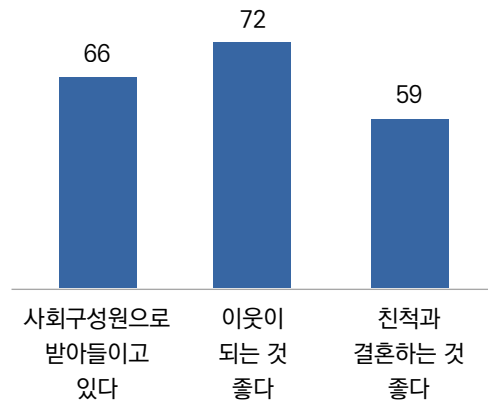
- ▶ 최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‘이주민 수용도 및 인권 의식 조사’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이주민(결혼 이주민, 이주 노동자) 지인을 둔 비율이 16%로 나타나 6명 중 1명은 생활 속에서 직·간접적으로 이주민과 관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- ▶ ‘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’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66%가 ‘그렇다’고 응답했고, ‘나의 이웃이 되는 것’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72%로 조금 더 높았다. 다만 ‘친척과 결혼하는 것’(59%)에 대해서는 이웃이 되는 것 대비 ‘좋다’고 응답한 비율이 13%p 낮아 가까운 가족 관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지인(가족, 이웃, 친구) 중 이주민 존재 여부

결혼 이주민, 이주 노동자 지인 있다



[그림] 이주민 관계에 대한 인식 (동의율, %)**
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, 이주민 수용도 및 인권 의식 조사, 2022.12.07 (2022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,148명, 면접조사, 2022.07.01.-09.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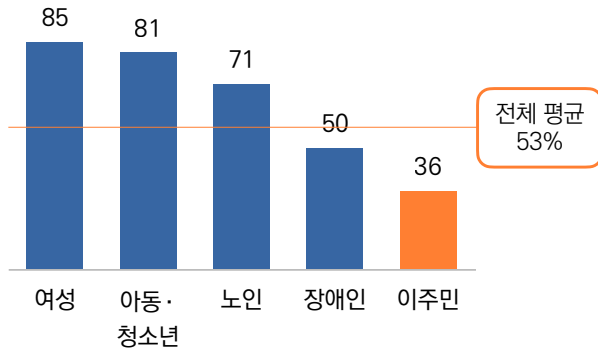
참조) 원자료 출처: 국가인권위원회,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, 2022.11.29.

**4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(매우+조금)/ 좋다(매우+대체로) 비율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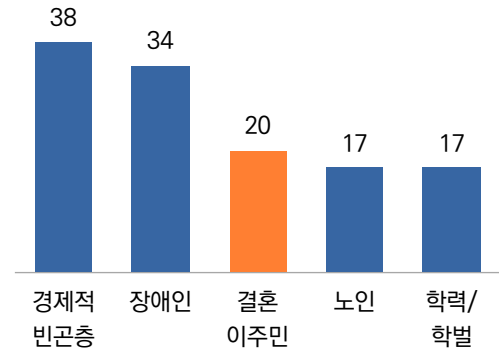
◎ ‘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’ 36%, 사회적 약자/소수자 5개 집단 중 최하위 기록!

- ▶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/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(53%)이었다. 사회적 약자/소수자 중 ‘이주민’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%로 5개 집단(여성, 아동·청소년, 노인, 장애인, 이주민) 가운데 가장 낮았고, 전체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.
- ▶ 한편 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물은 결과, ‘결혼 이주민’(20%)이 ‘경제적 빈곤층’, ‘장애인’에 이어 3위에 랭크된 점이 주목된다.

[그림] 사회적 약자/소수자 인권 존중도
(‘존중된다’ 응답률, %)**



[그림]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
(2개 복수선택, 상위 5위, %)



*자료 출처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, 이주민 수용도 및 인권 의식 조사, 2022.12.07 (2022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,148명, 면접조사, 2022.07.01.~09.16)

참조) 원자료 출처: 국가인권위원회,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, 2022.11.29.

**4점 척도 질문으로 존중된다(매우+존중되는 편) 비율임